

제15권 12호

2025. 6. 23~2025. 7. 6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임베디드 금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분석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금융경영브리프

‘부의 대이동’에 대응하는 금융회사의 전략
글로벌 은행의 손님 친화적 채널 전략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좁아지는 韓美
외 환 : 다시 리스크의 그림자 아래
부 동 산 : 과열과 침체 속 줄다리기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	-------------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이령화(ryoung.h)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주윤신(ysju)
연구원	김종현(jh.kim)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수석연구원	신유란(yooran0111)
부동산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정안선(ansunc)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5권 12호

2025. 6. 23~2025. 7. 6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임베디드 금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 04 **이슈분석**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 08 **금융경영브리프** ‘부의 대이동’에 대응하는 금융회사의 전략
 글로벌 은행의 손님 친화적 채널 전략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좁아지는 韓·美
 외 환 : 다시 리스크의 그림자 아래
 부 동 산 : 과열과 침체 속 줄다리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임베디드 금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김 혜 미 연구위원

비금융기업이 자체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금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임베디드 금융은 주로 간편결제 등에 집중되어 있어 확산속도나 깊이가 선진국에 비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망분리 규제, 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및 데이터 공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부수업무 및 겸업규제를 완화하며 은행대리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 임베디드 금융,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어

24년 5월 日철도회사 JR동일본이 ‘JRE뱅크’를 출시했다. JRE뱅크는 예금, 입출금, 이체, 모기지 등 인터넷전문은행 기능을 제공하며 동시에 JR동일본만이 가진 혜택(운임할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타 은행서비스와 다른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서비스로 초기부터 신청이 쇄도하여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JRE뱅크는 실제 은행이 아닌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서비스로 JR동일본 계열사인 뷰카드가 은행대리업을 취득하여 라쿠텐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다.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한 임베디드
금융이 부상

비금융회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이 보급되기 시작한지 십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형 플랫폼에서부터 특정 니즈에 특화된 것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임베디드 금융서비스가 탄생하였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회사가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자사 플랫폼 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 금융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임베디드 금융은 고객들로 하여금 플랫폼에서 더 오래, 더 자주 이용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시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제고시켜 왔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임베디드 금융은
은행, 비금융사,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사업모델

금융회사에게도 임베디드 금융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임베디드 금융은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비금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수료 수익, 데이터 기반 수익 등 비이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비금융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또한 비금융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 생활방식 등 풍부한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는 기존 금융데이터와 결합하여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어, 정교하고 개인화된 금융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사용된다.

:: 국내 임베디드 금융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유연화 필요

국내 빅테크 중심의
임베디드 금융이
추진되다가 최근
시중은행도 참전

국내 임베디드 금융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가령 네이버페이의 경우 쇼핑플랫폼 네이버 쇼핑과 연계된 간편결제나 네이버 파인애플을 통한 판매자 대출, 후불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플랫폼 내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최근 은행들도 빅테크와 핀테크의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베디드 금융을 핵심 디지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비금융 플랫폼에 자사 금융상품을 내장하여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함께 수시입출금 통장 ‘네이버페이머니하나통장’을 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당근머니하나통장’도 선보이기도 했다.

망분리 규제 등
경직된 규제 환경
변화로 임베디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금융당국 역시 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내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 속도나 깊이는 미국 등에 비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베디드 금융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

먼저 국내 금융회사는 IT시스템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망분리는 BaaS나 임베디드 금융의 핵심인 오픈 API연동,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어렵게 만들고 외부 비금융기업과의 연결 및 서비스 개발 속도를 저해한다. 따라서 비금융기업과의 API 연동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유연한 망 연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단 보안성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고객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임베디드 금융의 핵심은 비금융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제휴 및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은 이러한 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와 제휴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가 내재된 비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을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객 동의 기반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고, 비금융정보와 금융정보를 융합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와의 업무
제휴 및 데이터 공유
규제 합리화 필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은행이 비금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된 서비스가 본인가로 전화되는 과정이 느리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일시적인 규제 특례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이나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혁신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가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부수업무 및 겸업규제
완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필요, 은행대리인의
조속한 입법화 추진

마지막으로 은행대리업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은행대리업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 비금융회사 등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은행대리업은 우체국,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일본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은행대리업 대상이 편의점 등 비금융법인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임베디드 금융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프라인 접점을 가진 비금융기업들도 은행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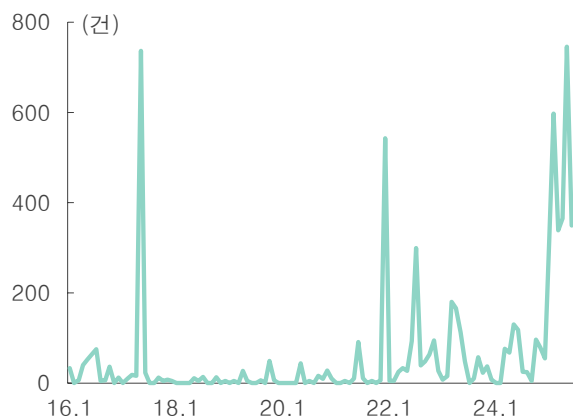
이 령 화 수석연구원

디지털 활용 일상화, 신규 디지털 자산의 등장 등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내 디지털 유산 인지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 삶의 마지막 전반을 정리하는 종활(終活) 트렌드가 확산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 서비스와 ‘잊혀질 권리’를 동시에 제공 중이다. 국내 업체들도 최근에 관련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해외 대비 국내는 아직까지 법제 정비 및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디지털 활용 일상화, 신규 디지털 자산의 등장 등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슈가 확대

- 디지털 활용 일상화로 개인정보가 소셜 미디어, 이메일,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로 저장되면서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이슈가 확산
- 당사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정기 결제 상품의 지속적인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유산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 상속 절차를 종료하였다가 추후에 이슈가 발생할 여지 등도 존재
- 특히 아바타 및 게임 아이템 등의 비전통적 자산, 전자화폐, 가상화폐 등의 신규 디지털 자산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운 이슈에 노출
 -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려면 핸드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에 로그인하거나 사용자 2단계 인증 비번 등이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 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움^[1]

■ 국내 ‘디지털 유산’ 검색량



자료 : PLUS ZERO

■ 디지털 유산 관련 이슈

인지의 어려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디지털 유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접근의 어려움	핸드폰, PC, 태블릿 등 접근 가능 기기의 비밀번호 등을 모를 경우 접근이 불가
자산 이전의 어려움	디지털 유산 보유 사업자별로 상속 여부 및 취급 처리 방침 등이 상이
	특히, 가상자산 등 해외 사업자 서비스는 국내 서비스보다 처리가 더 어려움

자료 : 주요 언론 정리

[1] 캐나다 가상화폐 거래소, QuadrigaCX 대표 사망 후 비밀번호 확인이 어려워 약 1,600억원 가량의 가상화폐 소실

■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 디지털 유산, 그 외의 경우 디지털 유품으로 분류

-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고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 콘텐츠, 사이버 머니 등 디지털 형식의 재산을 디지털 정보, 디지털 유산/유품 등으로 지칭^[2]
-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유산, 그 외 정보는 디지털 유품으로 구분하며, 디지털 유산의 경우 상속의 대상으로 분류
 - 디지털 유산은 가상화폐, 선불형 전자화폐, 신용카드·소매점 등의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NFT, 유튜브, 온라인 게시물 등 수익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
 - 디지털 유품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 이메일 등의 이용정보, 사진·영상·글 등의 공개정보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금전적 가치는 없음

■ 국내 디지털 유산 인지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나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서는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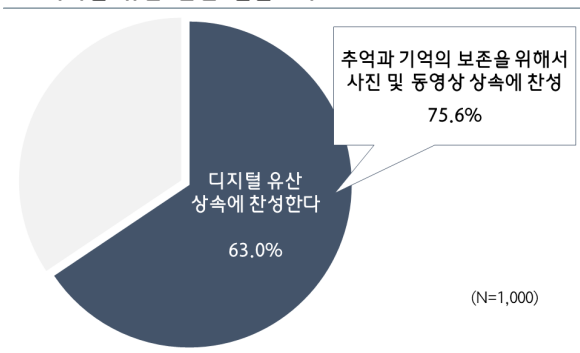
- '25.1월 언론사 설문조사^[3]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디지털 유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수준
- 반면, 63%의 응답자가 디지털 유산의 가족 상속을 찬성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상속 항목은 사진 및 동영상(75.6%)이고,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추억과 기억의 보존을 위함'으로 응답해 낮은 인지도 대비 상속 의지는 높은 편
- 만일 디지털 유산 상속인 미지정 시, 서비스 또는 플랫폼 기업이 가족에게 임의로 이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유산은 사진 및 동영상(32.3%), 온라인 계좌 및 금융 자산 접근권한(32.0%), 지인 연락처(31.6%) 順
- 한편, 40대의 경우 법적 문제 해결(상속 및 채무 등)을 위해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32.6%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해 사후 절차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일본의 디지털 유산/유품 정의

디지털 유산	디지털 유품
디지털 정보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	금전적 가치가 없는 디지털 정보 전반
- 가상자산, NFT - 선불형 전자화폐 - 신용카드/소매점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 -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저작물	- SNS 계정 - 이메일 계정 - PC, 스마트폰의 사진, 동영상, 문서 데이터 - 클라우드의 개인 데이터

자료 : green-osaka

■ 디지털 유산 관련 설문조사



자료 : 전자신문

[2] 국회입법조사처('25.3)에서는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로 명명하고 있으며, 언론 기사 등에서는 '디지털 유산/유품'으로 명명하는 등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공식 명칭은 부재

[3] 전자신문, '25.1월,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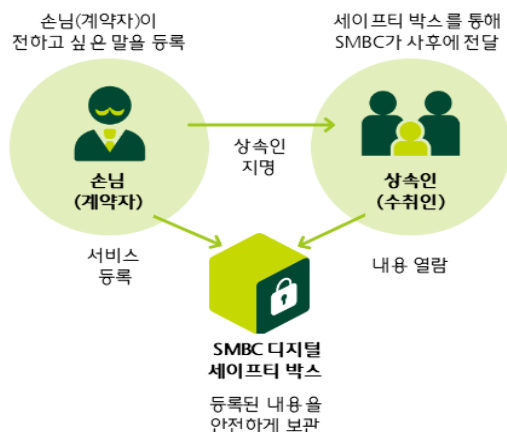
■ 일본은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 삶의 마지막 전반을 정리하는 종활(終活) 트렌드가 확산

-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장례 준비, 유언장 작성, 디지털 유산 정리, 엔딩노트(개인 메시지, 장례/사후정리 등을 기록) 등을 포함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종활(終活, 슈카쓰) 트렌드가 이미 확산
- 특히 지자체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 상담 창구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유산을 기부 받기도 하며, 금융사의 경우 은행 앱 등을 통해 디지털 유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
 - SMBC는 디지털 '세이프티 박스'를 통해 ID, 비밀번호 등 디지털 정보를 비롯해 의료, 간병, 장례 등의 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의 수취인 등록 가능
 - 세이프티 박스에는 연명치료 여부, 희망 장례 방식, 남기고 싶은 말(동영상, 음성, 글 형태), 입주하고 싶은 요양시설 및 비용 처리 방법 등을 등록 가능

■ 주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 서비스와 잊혀질 권리를 동시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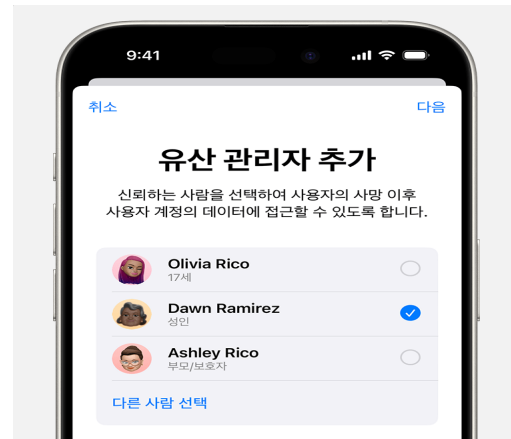
- **(Google)** 휴면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도입해 휴면기간이 지나면 지정한 사람에게 사진, 이메일, 문서 등의 디지털 자산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디지털 자산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계정 전체 삭제 기능도 제공
- **(Facebook)** 계정추모 서비스를 확장해 사후 연락자(legacy contact) 지정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정된 상속자(대리인)가 고인의 일부 게시글과 사진에 접근 가능
 - 단, 본인 사망 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유지해 '잊혀질 권리'도 보장
- **(Apple)**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사망진단서와 접근 키가 확인되면 별도 계정을 제공하며, 관리자는 해당 계정을 통해 고인의 계정에 3년간 접근 가능
 - 유산관리자를 삭제할 수도 있으며, 해당 결정은 상대방에게 알림 전송되지 않음

■ SMBC 세이프티 박스 서비스 구조



자료 : SMBC

■ Apple 디지털 유산 관리자 서비스 화면



자료 : Apple

■ 국내 업체들도 최근 디지털 유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개시

- 국내의 경우 최근 삼성에서 휴대폰(갤럭시) 유산관리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유산관리자로 지정될 당시 수령한 접근코드로 디지털 유산 계정을 신청하면, 해당 계정을 통해 연락처, 메모 등을 다운로드 가능
- 네이버의 경우 디지털 유산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 성격의 정보(예. 블로그 공개글)는 상속자가 요청할 경우 백업을 지원하나, ID, 비밀번호, 비공개 이용정보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공하지 않음
- 카카오의 경우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여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 금전 환산 가능 권리는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개된 게시물은 백업을 지원
 - 단, 생전에 비공개였던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공하지 않음

■ 향후 디지털 유산 이슈는 점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제 정비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

- 국내는 아직까지 디지털 유산을 재산으로써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와 정보로 보는 견해(상속 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로 취급)로 나뉘어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 마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
- 반면, 미국의 경우 47개 주(州)에서 디지털 유산 관련법이 입법되었으며('22)⁴⁾, 독일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18)
- 디지털 일상화 가운데 국내도 '24년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유산 관련 이슈는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제 마련 및 논의가 필요 

■ 국내 디지털 유산 관련 서비스 내용

디지털 유산 서비스	
삼성계정	■ 미리 제공된 접근코드 등 확인 후 디지털 유산 계정을 발급 하며, 해당 계정을 통해 디지털 유산에 접근 가능
네이버	■ 휴면 정책을 통해 계정 접근 제한 조치 (장기 미사용 건은 휴면계정 해제 가능) ■ 공개정보의 경우 요청 시 백업 지원
카카오	■ 공개 게시물의 경우 백업 지원 ■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선불 전자지급 수단 등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해외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현황

디지털 유산 법제 관련 내용	
미국	■ '14년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 제정 후 개인 프라이버시 및 사업자 보안정책 침해 의견 등으로 '15년 수정법안 마련 ■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 디지털 자산관리자의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중시
독일	■ '18년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콘텐츠를 일기, 편지 등 아날로그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 ■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 사용자의 재산이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원칙 확립
프랑스	■ '16.10월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망 후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미리 결정하는 권리를 규정 (예. 정보 보존 여부, 제3자 전달 여부 등) ■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행책임자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침 실행 요구 권한 보유

자료 : 법제처

[4] 연방차원(통일주법위원회)에서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UFADA)'을 제정해 주법으로 입법을 권장하였으며, '22년 기준 총 47개 주에서 이를 채택

‘부의 대이동’에 대응하는 금융회사의 전략

주 윤 신 연구위원

전세계 HNW의 자산규모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의 대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수 금융회사들이 세대간 자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차세대 HNW와의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와는 다른 차세대 HNW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한편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세대간 자산 이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세대 고객 이탈 방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세계 HNW의 자산규모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의 대이동’이 본격화^[1]

- 2024년 전세계 HNW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는 전년비 4.2% 증가한 90.5조달러 수준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지역별로는 북아메리카 지역 HNW의 자산규모가 8.9%로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 HNW 자산도 각각 4.8%, 4.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 고령화 등과 맞물려 HNW 계층 내 ‘부의 대이동(great wealth transfer)’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등으로의 세대간 자산 이전이 확대
 - 2048년까지 약 83.5조달러 규모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
 - 자산 이전의 수혜자는 베이비부머 5%, X세대 37%, 밀레니얼 44%, Z세대 14%로 추정

■ 금융회사들이 세대간 자산 이전에 대응하고 있으나, 차세대 HNW와의 관계 구축에 어려움

- 상속·증여 이후 타 금융기관으로의 고객 자산 이탈을 막기 위한 차세대 HNW와의 관계 구축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 Capgemini의 서베이 결과 차세대 HNW 중 81% 이상이 상속·증여 후 1~2년 내에 부모 세대가 이용하던 금융회사를 타 금융회사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응답
 - 금융회사 변경 이유는 디지털 채널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부족 46%, 대체투자 이용 불가 33%, 불충분한 부가서비스 25% 등으로 나타남
- 이를 인식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자녀 세대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해 부족 등으로 적절한 솔루션 제공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WM 임원 중 58%가 차세대 HNW와의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1] “World Wealth Report 2025 – Sail the great wealth transfer”, Capgemini, 20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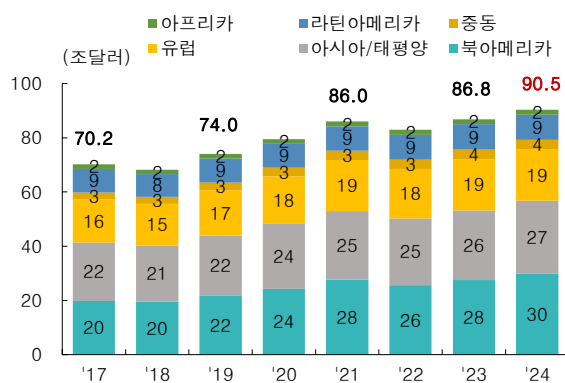
■ 차세대 HNW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 차별화와 자문가의 역할 강화가 필요

- 부의 보존에 집중하는 베이비부머와 달리 사모, 가상자산 등 고성장 자산과 해외 등에 투자해 부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세대 HNW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 BoA의 서베이에 따르면 젊은 HNW('25년 기준 21~43세) 중 72%가 전통자산 투자만으로는 더 이상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응답
- 자녀 세대가 선호하는 부동산 플랜, 법률 및 자선 자문, 컨시어지 등의 맞춤형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디지털과 자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채널 강화도 필요
 - 차세대 HNW는 디지털 채널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웹사이트 활용과 비디오 콜을 통한 자문가와 상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문가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 고객의 특징을 고려해 자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디지털 투자 확대와 함께 우수 자문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
 - 금융회사 자체에 로열티가 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젊은 HNW 계층은 자신의 금융 니즈를 이해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가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 차세대 HNW 중 62%가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자문가가 다른 회사로 이직시 그를 따라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것이라고 응답

■ 국내 금융회사도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자녀 세대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대응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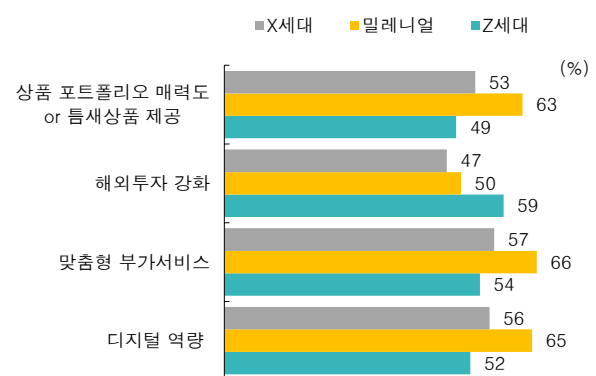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세대간 자산 이전이 본격화
 - '23년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은 약 11.2조원으로 10년 전인 '13년 대비 241.7%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 수도 '13년 대비 295.8% 증가한 18,282명 수준
- 국내 금융회사도 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의 고객 자산 이탈 방지 및 신규 고객 확보 등을 위해 자녀 세대 니즈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전세계 HNW 보유 금융자산 규모



자료 : Capgemini

■ 차세대 HNW의 연령층별 금융니즈



자료 : Capgemini

글로벌 은행의 손님 친화적 채널 전략

김 종 현 연구원

최근 BofA, Wells Fargo 등 대형 금융사는 디지털화 및 전통적 창구의 역할 변화 등을 통해 손님 친화적 채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은행들의 점포 수가 축소되었으나, 신뢰도가 중요한 핵심 업무에 대한 대면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내면서 손님 경험 차별화를 위한 오프라인 점포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국내 금융사는 디지털 강화 전략 속 특화 점포 등을 통해 손님 접점을 확대하는 등 지점 역할 재설계와 채널 전략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및 손님 경험 차별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

■ 최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추세 속 전통적 창구의 역할이 새롭게 변모^[1]

- 팬데믹 이후 급격한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점포 수 감소 추세는 완화되고 있으며 손님 밀착형 채널 전략 강화 흐름이 재부각
 -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은행 지점 수는 28.6('07)개에서 15.5('23)개로 감소
- 디지털 채널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속도는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통 지점은 손님과의 신뢰 형성 및 복합 업무 대응을 위한 핵심 접점으로 재정의 됨
 - 지점의 기능이 '단순 거래'에서 '재무 상담 및 자산관리 중심의 상호작용 공간'으로 전환
- 기존 점포는 디지털 사전 처리와 예약 기반 상담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지점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손님 여정 기반 상담 시스템이 강화

■ 특히,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면 선호도가 높아 오프라인 점포의 중요성이 재부각

- 손님들은 대출, 투자 등 고관여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복잡한 금융 판단에서도 디지털보다 대면 상담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액 이체, 위임장 등록, 사기 복구 등 신뢰도가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대면 처리 선호
- 더욱이 고령층 및 고자산군의 디지털 이탈과 소외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오프라인 채널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
- 디지털 채널과 오프라인 지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이브리드 채널 전략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개선 및 손님 충성도 제고, 장기적 관계 형성 강화 등이 가능
 -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오프라인 지점은 신뢰의 거점, 브랜드 경험 상징으로 진화

[1] "The bank branch might just have a very bright future", Financial Times, 202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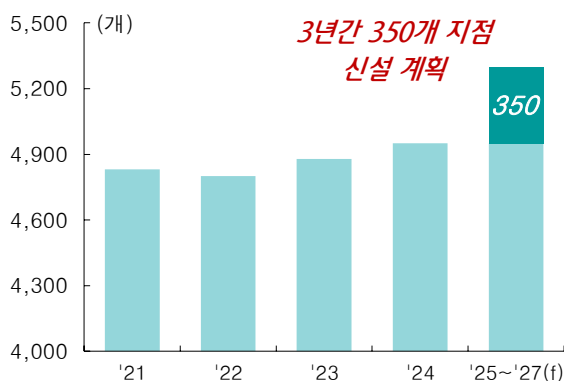
■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과 오프라인 리디자인 전략을 병행하며 손님 점점 강화에 주력

- Wells Fargo는 지점을 리노베이션하여 손님 중심 상담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지점과 디지털 채널을 통합한 옴니채널 전략을 구사하여 리테일 금융 부문의 성장 도모
- BofA는 신규 손님 유치에 위해 향후 3년간 신규 지점 150여개를 개설할 예정이며 既지점 리뉴얼을 통해 디지털 기능과 대면 컨설팅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점포로 전환
- JP Morgan Chase는 '25~'27년 사이 350개 이상의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으로 고액 자산가 대상 프리미엄 재무센터, 디지털 RM 도입 등 고부가 채널 전략을 추진
- Santander는 유럽에서 카페와 금융 상담이 결합된 'Work Cafe' 컨셉 점포를 확대하여 젊은 손님층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금융 모델을 구축

■ 국내 금융사도 채널 전략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및 손님 경험 차별화에 주목할 필요

- 국내 금융사는 디지털 금융앱·AI상담 강화 등 디지털 전략에 집중하며 점포 수를 축소해 왔으나, 지점 역할 재설계 등 균형 잡힌 채널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수를 축소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특화 점포 운영(외국인, 고령층, 투자자 중심 거점 등)을 병행하는 복합적 채널 전략으로의 전환도 확대
 - 손님이 원하는 방식, 시간, 장소에서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점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 또한, 국내 금융사는 단순 점포 수 통폐합을 넘어서 오프라인 지점 리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고 손님 경험을 고도화할 필요
 - 지점을 단순한 거래창구가 아니라 브랜드 경험 공간이자 복잡한 금융 니즈를 해결하는 컨설팅 허브로 재정의하고, '손님 여정 전체 설계' 관점에서 접근 

■ JP Morgan Chase의 지점 수 추이 및 전망



자료 : JP Morgan Chase Annual Report('20~'24)

■ 손님 접점 확대를 위한 Santander의 Work Cafe



자료 : Santander

금리: 기준금리 인하 경로가 좁아지는 韓·美

민 현 하 연구원

美 금리는 미·중 무역 합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 관련 수급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하락했다. 韓 금리는 5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2차 추경으로 인한 수급 부담,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기준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으로 상승했다. 6월 FOMC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견조한 경제와 고용을 고려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 상 매파적인 스탠스는 강화되었다. 韓 시장금리는 발행 물량 확대, 기준금리 인하 폭 축소 등 상승요인에도 대규모 추경을 선반영하고 있어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 美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합의, 수급 불확실성 해소, 중동 리스크 부각 등으로 하락

- 美 금리는 미·중 관세 인하 일시적 합의, TCJA 법안 하원 통과로 수급 불확실성 일부 해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하락(美 10년물 금리(%): 5.23일 4.51→6.19일 4.39)
- 특히, 美 금리는 중동 發 유가 급등으로(5월말 대비 +23.6%) 인플레이션 우려 재발되어 상승했으나 미국 개입 가능성 등이 예상되며 상승폭 반납
 - 중동 리스크 이후 유가 변동(WTI, 배럴/\$) : 6.12일 68.04 → 6.18일 75.14
- 달러 자산 신뢰도 약화로 외국인이 미 국채 시장에서 이탈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주요국(日,英) 보유액은 증가해 외국인 이탈로 인한 수급 우려는 일부 해소
 - 日/英의 美 국채 보유액 변화(조\$) : '25.1월 1.07/0.74 → 4월 1.13/0.81

■ 5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규모 2차 추경에 따른 수급 이슈로 상승 압력 부각

- 5월 금통위는 美 관세 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폭 확대, 더딘 내수 회복 등에 따른 성장 하방위험 증대를 고려해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5bp 인하 단행(2.75%→2.50%)
 - 한은은 건설투자(-0.4%p), 수출(-0.2%p), 민간 소비(-0.15%p) 부진에 기반해 '25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5%→0.8%)했음을 강조
- 특히, 건설투자 부진 해소를 위한 무리한 재정/통화정책이 부동산/부채문제를 악화시키며 금융 불균형 이슈를 증폭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추진을 시사
 - 건설투자 부진은 지방 미분양 누적, 상업용 부동산 부진 등으로 개선세가 더딜 전망
- 韓 시장금리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대규모 추경 및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되었고 금융 안정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이 확대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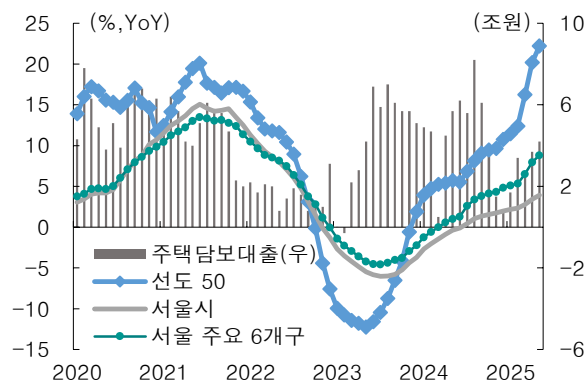
■ 6월 FOMC, 높은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정책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결

- 연준은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도 견조한 경제활동과 고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4회 연속 기준금리(4.25~4.50%)를 동결
 - 점도표 상 '25년 중앙값은(3.9%) 유지했음에도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은 증가(4명→7명)하여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
- 정부 효율화, 이민자 추방, 관세發 고용심리 위축에 따른 고용 둔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연준의 정책 결정 고민은 깊어질 전망
 - 고용 둔화 가능성은 금리 인하 요인이고 물가 상승 우려는 인하 지연 요인으로 연준은 이중책무 양쪽 위험 모두 경계하고 있음을 표명
- 선물 시장은 연내 추가 2회 인하를 반영하지만 지속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물가 상승 경계심으로 시장은 연내 추가 1회 인하를 전망하는 비중이 확대된 상황
 - 주요 IB '25년 美 기준금리 전망 : 9개 회사 중 동결 의견 2개, 25bp 인하 5개, 50bp 인하 1개

■ 韓 금리, 기준금리 인하 폭 축소 예상과 발행 물량 확대가 상방 압력을 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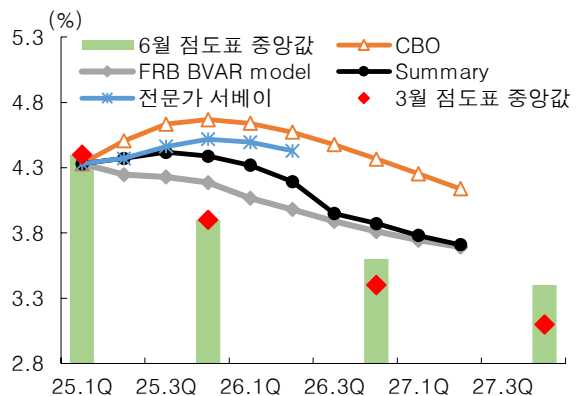
- 5월 금통위 이후 금융안정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토허제 일시 해제 과정에서 주택가격/가계부채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대두
- 또한, 新정부의 2차 추경 규모는 30.5조원(적자 국채 발행 규모 : 19.8조원)로 이를 통한 성장률 개선 기대가 확대되고 금리 인하 폭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
- 韓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폭 축소, 추경 적자 국채 발행으로 물량 확대 우려가 있음에도 시장은 대규모 추경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어 장기금리 중심의 제한적 상승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40%~2.55%, 2.80%~3.00% 범위로 전망 

■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KB부동산, 하나금융연구소

■ 주요기관 美 연준 기준금리 전망 변화



자료: Bloomberg, CBO, FRB,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다시 리스크의 그림자 아래

신 유 란 수석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으로 경기부양 기대감이 강화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1,35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중동 분쟁 발발로 1,380원선까지 반등하였다. 7월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 간 협상 진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재상승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추후 韓·美 무역 협상 진행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 [원/달러 환율]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약화 및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한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 아울러 조기대선 시행으로 신정부가 출범한 데 따른 정치 공백 해소 및 추정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기대감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신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인한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증권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원화 강세
- 이후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발발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재상승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반등, 유로화·위안화 강세

- 달러화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달러 자산 신뢰도 약화 및 경기 지표 둔화, 美·中 무역 갈등 재격화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하다 중동 리스크 발발로 반등
- 유로화는 달러화지수 약세,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로교환 및 휴전 논의 소식, 라가르드 ECB 총재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점 언급 영향으로 강세
- 엔화는 안전 자산 수요 유입 및 美·日 환율 협상 기대 등 엔화 강세 요인과 일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엔화 매도 등 약세 요인이 맞물리며 등락을 반복
- 위안화는 중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 확대 및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상승,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확대 추진 등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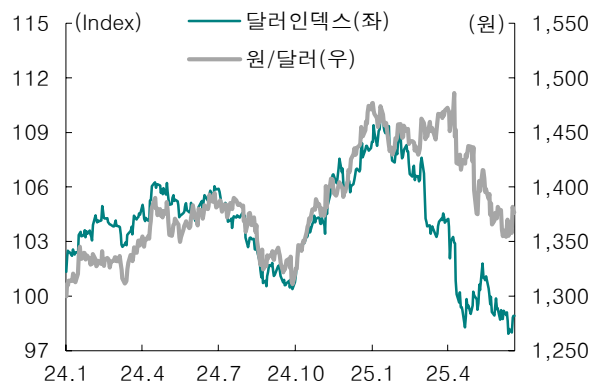
■ 美 상호 관세 90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협상 부진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재부각

- 美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4월 9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달러화 지수는 하락 추세를 지속
- 7월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관세 압박 수위가 고조
 - 다만, 협상 성실 국가에는 관세 재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가별 대응이 차별화될 전망
-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영국이 유일한 가운데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역협상 논의가 불발되며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
- 미국이 국가별 협상 내용에 따라 무역 합의, 관세 유예 연장 또는 일방적 관세 부과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재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 신정부 출범으로 최근 ‘對美 통상 TF’를 발족하였으나, 관세 유예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의미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
- 아울러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재개된 중동 분쟁이 미국의 개입까지 더해지며 장기화될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
- 美 관세 불확실성 재부각 및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산으로 최근 약세를 지속하던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도 재상승할 가능성
- 韓美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중동 분쟁이 근시일 내 완화될 경우 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 진행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50~1,400원에서 움직일 전망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관세 유예 이후 美·주요 협상대상국 간 협상 진척 상황

국가명	국가별 對美 무역 협상 진행 현황
영국	- 5월 8일 협상 타결(첫 협상 타결국) - 자동차 관세 인하(25%→10%),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인하 및 수입 쿼터 협의 중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합의
중국	- 5월 제네바 협상에서 90일간 관세 115%p 상호 인하 합의 -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합의
일본	- 4차 협상 완료 - 자동차 25% 관세 철폐 요구 지속 중
베트남	- 3차 협상 완료 - 미국의 중국 의존도 감축 요구 수용
EU	- 패스트트랙 관세 협상 돌입 - 미국의 상호관세 10% 수용 거부
한국	- '7월 패키지'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축소·철폐 요구 지속 중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

부동산: 과열과 침체 속 줄다리기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대부분 지방의 침체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이전 매매거래가 ‘뚝뚝한 한 채’에 쏠리며 신고가 갱신이 지속되고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심 매매가격 상승에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거래 및 대출 규제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급 부족 우려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기대되나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은 중장기가 소요되기에 단기적 공급 부족은 유지될 전망이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대부분 지방의 침체로 하락세 지속

- 매수세가 집중된 강남3구, 마용성 등 강북, 경기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대부분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전국 하락세 지속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01('25.3월) → -0.02(4월) → -0.02(5월)
- 신고가 갱신 및 거래 증가 영향에 아파트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시장 관망세와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축소된 연립은 하락 전환, 단독은 전월 수준을 유지
 - 유형별 상승률(% , MoM, 4월/5월) : 아파트 -0.06/-0.03 연립 0.01/-0.03, 단독 0.08/0.08
- 전국 전세가격은 서울, 경기 등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상승 거래되었으나 인천, 대전, 대구에서 입주물량 영향에 하락하며 전월 대비 보합세 유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03('25.3월) → 0.00(4월) → 0.00(5월)

■ DSR 강화 이전 매매거래가 집중되고 ‘뚝뚝한 한 채’의 신고가 갱신은 지속될 전망

- 대출 규제 강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공급 부족 우려로 수도권 신규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기대가 확산되며 매수심리는 상승
 - 매매가격 전망지수('24.12월 → '25.5월) : 수도권 85.6 → 103.1, 서울 86.4 → 110.3
 - 주택 매수심리지수('24.12월 → '25.5월) : 수도권 102.4 → 118.3, 서울 107.7 → 131.5
- 지방은 가격 하락전망이 우세하고 미분양 및 매물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매수세 유입도 적어 당분간 수도권 중심의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또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지역 내 ‘뚝뚝한 한 채’를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이 지속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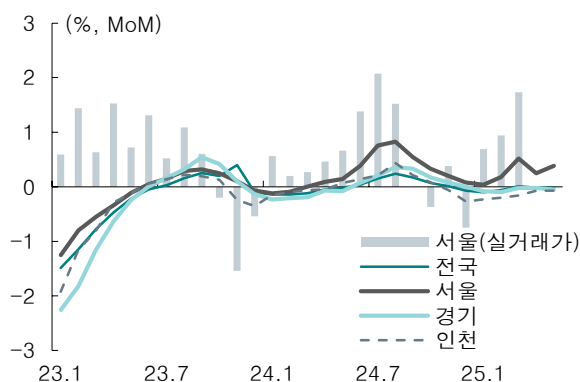
■ 수도권 가격 상승에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거래·대출 규제책이 추가될 가능성 증대

- 토허제 확대에도 서울 도심, 강남3구의 신고가 갱신이 지속되고 서울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지속되며 주담대 증가폭도 확대
 - 숏은행권 가계 주담대 증감(조원, MoM) : 3.7('25.3월) → 4.8(4월) → 5.6(5월)
- 토허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마포, 성동과 분당 등 일부 경기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토허제 지역 등 규제지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 증대
-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갭투자 등으로 투자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규제 범위가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로 확대될 소지
 -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공급 확대책으로 정비사업 촉진책이 기대되나 관련 절차 및 의견 취합으로 중장기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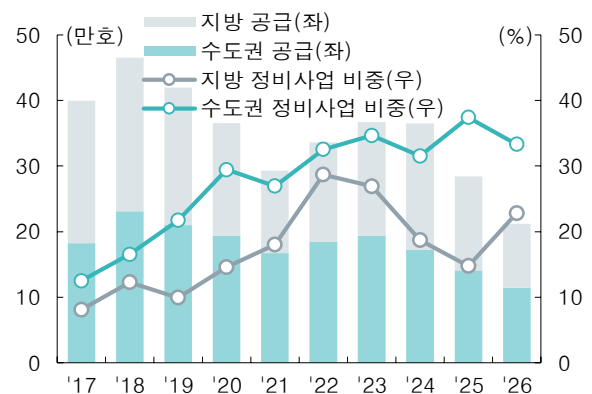
- 신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감소할 예정이나 지방 대비 수도권의 거주 수요가 두터워 수도권 공급 부족에 따른 매수세 집중 우려가 증대
 - 매수우위지수('24.12월 → '25.5월) : 수도권 29 → 37.7, 서울 36.8 → 59.6
 - ※ 0~200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음
-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 중 약 40%가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으로 공급되기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촉진책 도입 등 추가 규제 완화가 기대
- 하지만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절차는 규제 완화에도 인허가, 기부 채납 협의, 조합원 간 의견 취합 등으로 5~7년 이상 소요되기에 단기간 공급 확대는 난망
 - 재건축 아파트 추진 단계 중 조합원간 의견 취합 등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무르는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음(전국 32%, 수도권 31%, 서울 40%)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지역별 아파트 공급 및 정비사업 공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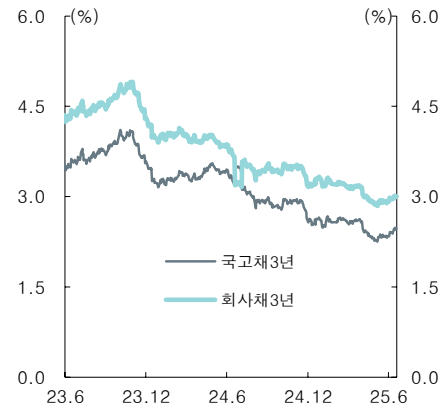


주 : 2025년부터는 예상치
자료 : 부동산114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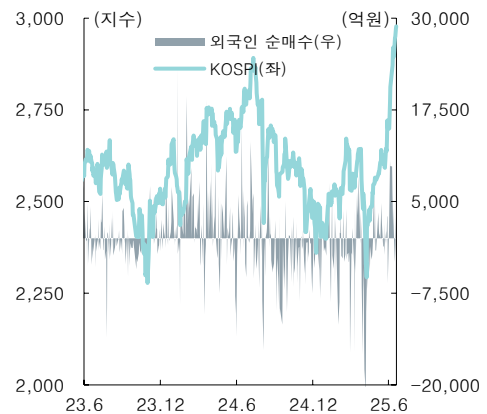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5월말	2.58	2.59	2.49	2.92	2.35	2.52
6월 13일	2.54	2.56	2.52	3.00	2.46	2.60
6월 16일	2.54	2.56	2.52	3.02	2.48	2.62
6월 17일	2.53	2.56	2.50	2.99	2.45	2.61
6월 18일	2.53	2.56	2.52	3.00	2.47	2.64
6월 19일	2.53	2.56	2.52	3.01	2.48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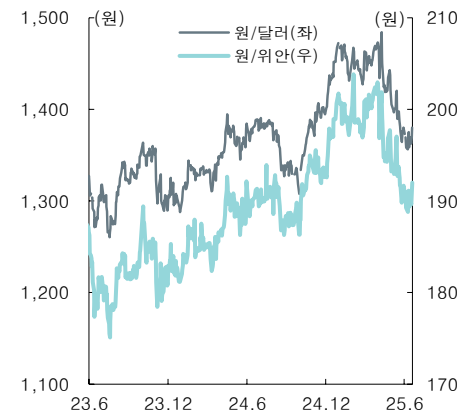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5월말	2,697.7	148,036	526	-6,118
6월 13일	2,894.6	174,628	932	1,219
6월 16일	2,946.7	144,011	726	-3,224
6월 17일	2,950.3	179,159	940	-967
6월 18일	2,972.2	146,683	577	2,864
6월 19일	2,977.7	137,866	433	-874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5월말	1,380.1	957.5	191.7	1,565.8
6월 13일	1,369.6	950.5	190.7	1,580.9
6월 16일	1,363.8	942.0	189.9	1,576.4
6월 17일	1,362.7	937.6	189.6	1,564.3
6월 18일	1,369.4	943.5	190.5	1,571.7
6월 19일	1,380.2	948.6	192.0	1,5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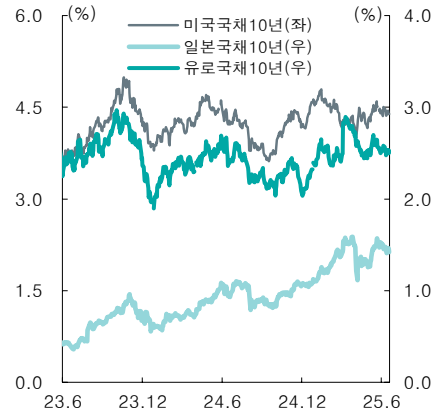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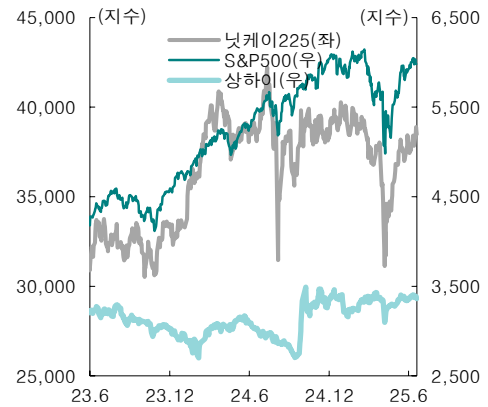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5월말	4.33	4.35	3.90	4.40	1.50	2.50
6월 13일	4.33	4.34	3.95	4.40	1.41	2.54
6월 16일	4.33	4.34	3.97	4.45	1.44	2.53
6월 17일	4.33	4.34	3.95	4.39	1.47	2.54
6월 18일	-	4.34	3.94	4.39	1.46	2.50
6월 19일	-	-	3.94	4.39	1.42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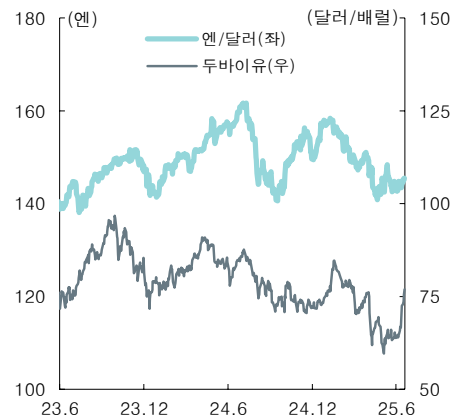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5월말	5,911.7	37,965.1	3,347.5	5,366.6
6월 13일	5,977.0	37,834.3	3,377.0	5,290.5
6월 16일	6,033.1	38,311.3	3,388.7	5,339.6
6월 17일	5,982.7	38,536.7	3,387.4	5,288.7
6월 18일	5,980.9	38,885.2	3,388.8	5,266.9
6월 19일	-	38,488.3	3,362.1	5,197.0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5월말	143.98	1.135	63.8	3,315.4
6월 13일	144.06	1.154	72.5	3,452.8
6월 16일	144.70	1.156	72.9	3,417.3
6월 17일	145.25	1.148	73.7	3,406.9
6월 18일	145.12	1.148	75.5	3,408.1
6월 19일	145.46	1.149	76.9	3,382.2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6월 20일 인쇄

2025년 6월 23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